**4. 오가신잔 전승관: 공연, 나마하게 등장~앉기까지**

가장은 나마하게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술이 든 잔을 건넵니다. 이것은 신들에게 존경을 뜻을 표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나마하게는 가장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방문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병이 퍼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병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마하게가 집집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거주민이 불행에 대한 걱정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제는 나마하게가 마시고 있는 술로 바뀝니다. 가장은 함께 살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현지의 아키타코마치 쌀을 사용하여 나마하게를 위해 특별히 만든 술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보통 이 아키타코마치는 술을 빚기에는 매우 고급스러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나마하게가 마시는 술이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은 술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은 나마하게에게 술을 더 권하고 방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